

보도 시점 (전매체) 배포즉시

중소벤처기업부·외교부 공동주최 「2024 한-중남미 미래협력 공개토론회(포럼)」 개최

- 한국과 중남미 지역, 동반성장과 민생경제 강화를 위한 연대 강조
- 중남미 6개국 장관, 경제안보 분야에서의 한-중남미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실질협력 확대 방안 심도 논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와 외교부(장관 조태열)가 공동으로 주최한 「2024 한-중남미 미래협력 공개토론회(포럼)」가 6.10.(월) 현장에서 270명 이상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포럼에는 페루, 온두라스, 칠레, 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쿠바 등 중남미 6개국 및 OECD 등 고위인사*와 함께 우리 정부, 학계 등 전문가들이 토론자(패널)로 참석하여, 급변하는 국제정치·경제 질서 속에서 한-중남미 간 상생협력을 위한 협력관계(파트너십) 강화방안을 모색했다.

* △Eduardo Reina **온두라스** 외교부 장관, △Javier González-Olaechea **페루** 외교부 장관, △Aurora Williams **칠레** 광업부 장관, △Hector Marroquín **과테말라** 경제부 차관, △Johannes Marinus Kelner **도미니카(공)** 산업부 차관, △Carlos Pereira **쿠바** 외교부 양자총국장, △Jose Ardavin **OECD** 대외협력국 과장

특히 금년 분야(세션)는 ‘동반성장과 민생경제 강화’ 주제로 진행된 만큼,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분야별 실질 협력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환영사에서 한국과 중남미 지역이 120여년간 우애와 연대의 여정을 함께 해왔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1950년 모든 중남미 국가들의 한국전쟁 지원, △2004년 한-칠레 FTA 발효를 시작으로 한국의 중남미 9개국과 FTA 체결, △지난 2월 한-쿠바 외교관계 수립 등의 주요 이정표를 언급했다.

오영주 중소기업부 장관은 개회사에서 최근 국제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그 여파로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한국과 중남미 간 연대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한국과 중남미 지역의 협력관계(파트너십) 증진과 민생경제 강화를 위해 ①정부 중심에서 민간으로 협력 주체의 확대, ②물적자원 중심에서 기술·인적교류·개발 경험 등으로 협력 방식의 확대, ③교역 중심에서 첨단산업, 창업기업(스타트업) 육성 등으로 협력 분야의 확대를 제안했다.

곤잘레스 올라에체아 페루 외교부 장관은 중남미 지역이 국제경제 무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고 평가하면서, 전략적 동반자인 한국과 상호 호혜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하였다. 구체적으로 중남미 지역은 한국 산업에 필요한 천연 자원 제공을 위해 공급망 강화에 우호적인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한국과 사회 경제발전 경험 공유 등을 통해 경제통상 협력을 증진을 희망한다고 했다.

에두아르도 레이나 온두라스 외교부 장관은 다양한 지정학적 분쟁을 마주하고 있는 현재 한국과 중남미 지역의 협력을 통해 공통의 도전과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녹색경제, 교육, 보건 등의 분야에서 한국의 경험이 풍부한바,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및 라틴아메리카·카리브 국가 공동체(CELAC)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한국과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카를로스 페레이라 쿠바 외교부 양자총국장은 올해 2월 한-쿠바 외교관계 수립 이후 첫 번째 공식 방문단으로서 방한하여 한-중남미 미래협력공개토론회(포럼)에 참석할 수 있어 기쁘다고 했다. 동 국장은 쿠바가 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이미 160여개국과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하고 있는 만큼 향후에도 한국과 보건의료, 자원, 신재생에너지,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자 및 삼각 협력 사업을 발굴해 나갈 수 있길 희망하였다. 특히 페레이라 국장은 쿠바의 제안으로 시작된 한국 국제협력단(KOICA)-카리브국가연합(ACS) 간 해안 침식 대응 사업으로 축적한 협력 경험이 한-쿠바 협력 사업 발굴 및 추진시 유용할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한-중남미 미래협력 공개토론회(포럼)는 2008년부터 외교부가 주관하는 연례 중남미 최고위급인사 초청행사로써, 금년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공동 주최하여 한-중남미 지역 내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호혜적 협력 교류(네트워크) 강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담당 부서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관 국제통상협력과	책임자	국제통상협력과장	박수민	(044-204-7550)
		담당자	행정사무관	김진중	(044-204-7551)
담당 부서 (외교부)	중남미국 중남미협력과	책임자	남미과장	오승준	(02-2100-7431)
		담당자	외무서기관	방지희	(02-2100-7240)

10:00-10:30	<p>■ 개회식</p>
	<p>10:00-10:11 오프닝 영상 및 환영사 (조태열 외교부 장관)</p>
	<p>10:11-10:18 개 회 사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p>
	<p>10:18-10:25 축 사 (페루 외교부 장관)</p>
	<p>10:25-10:30 포토세션</p>
10:40-12:00	<p>■ 세션 1 : 글로벌 불확실성 대응을 위한 한-중남미 파트너십 증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두아르도 엔리케 레이나 가르시아(Eduardo Enrique Reina Garcia) 은두라스 외교부 장관 · 자비에르 곤잘레스 올리체아(Javier González-Olaechea) 페루 외교부 장관 · 김지윤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원 · 이승호 전북대학교 스페인중남미학과 교수
12:00-13:30	<p>네트워킹 오찬</p>
13:30-14:50	<p>■ 세션 2 : 한-중남미 경제·안보 협력 강화방안 및 도전과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로라 윌리엄스(Aurora Williams) 칠레 광업부 장관 · 헥터 호세 마로퀸 모라(Hector José Marroquín Mora) 과테말라 경제부 차관 · 홍성우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부연구위원 · 양준석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14:50-15:10	<p>커피 브레이크</p>
15:10-16:30	<p>■ 세션 3 : 민생 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분야별 맞춤형 실질협력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아네스 마리누스 켈너 데 베니토(Johannes Marinus Kelner De Benito) 도미니카 공화국 산업부 차관 · 카를로스 미겔 페레이라 에르난데스 (Carlos Mguel Pereira Hernandez) 쿠바 외교부 양자총국장 · 호세 안토니오 알다빈 (Jose-Antonio Ardavin) OECD 대외협력국 중남미 총괄 과장 · 채연주 외교부 개발협력과장 · 김병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 중남미실장
16:30-16:40	<p>폐 회</p>